

오순절 후 두번째 주일 예배

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AFTER PENTECOST

주후 2021년 6월 6일 오전 10시

인도: 김일선 목사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*입례 찬양 Opening Hymn | “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” | 다같이 |
| *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| | 인도자 |
| *찬 송 Hymn | 507장 “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” (새455) | 다같이 |
| *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| 23번 시편(Psalm) 98편 | 다같이 |
| *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| | 다같이 |
| *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| | 인도자 |
| *송 영 Gloria Patri | 555장 “세 번 아멘” | 다같이 |
| *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| | 다같이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| 문일호 장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| 빌립보서 (Philippians) 2:1-12 | 이윤선 집사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
| | |
|------------|-----|
| 찬 양 Anthem | 찬양대 |
|------------|-----|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설 교 Sermon | “다시 만나는 교회(30) – 주님의 마음으로” | 김일선 목사 |
| (Gathering Together Again – With Humble Spirit) | |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| 다같이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
| | |
|----------------|-----|
| 봉 헌 Offerings. | 다같이 |
|----------------|-----|

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*송 영 Doxology | 353장 “내 주 예수 주신 은혜” (새317) 1절 | 다같이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*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| 다같이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교회 소식 Announcements | 인도자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|

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*찬 송 Hymn | 524장 “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” (새222) | 다같이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*축 도 Benediction | 김일선 목사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

*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stand if you are able.

고백의 기도

(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,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)

다같이: **거룩하신 하나님,**

“공홀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,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도다”고

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,

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, 우리는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.

그래서,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진리를 드러내야 할 때, 오히려 침묵했고,

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,

오히려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말을 앞세우곤 했습니다.

“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,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.”

우리의 어리석음과, 우리의 교만과, 우리의 죄악을 용서 하옵소서.

그리하여, 이제부터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,

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,

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.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(*시 85:10-11, 약 3:18)

오늘의 성경/말씀 TODAY'S SCRIPTURE

“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나” (한글개역 **빌 25**)

“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”

(NIV **Philippians 2:5**)

매/일/성/경/읽/기 DAILY BIBLE READINGS

| | | | | | | |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날짜 | 6/6 (주일) | 6/7 (월) | 6/8 (화) | 6/9 (수) | 6/10 (목) | 6/11 (금) | 6/12 (토) |
| | 신10 | 신11 | 신12 | 신13,14 | 신15 | 신16 | 신17 |
| 본문 | 시94 | 시95,96 | 시97,98 | 시99-101 | 시102 | 시103 | 시104 |
| | 사38 | 사39 | 사40 | 사41 | 사42 | 사43 | 사44 |
| | 계8 | 계9 | 계10 | 계11 | 계12 | 계13 | 계14 |

수/요/ 성/경/공/부 토/요/ 새/벽/기/도/회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요 성경공부 (6/9수 오후7:30) | “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” (고후5:14-21) |
| 토요 새벽기도회 (6/12토 오전6:30) | “여호와여, 공홀히 여기소서” (시41:1-13) |

지난 주일(5/30) 말씀

“다시 만나는 교회 (29) – 자유함으로” (벧전 2:11-21)

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, (한 마디로) 자유라고 정의내리면서, “그리스도인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으며, 동시에 만물을 섬기는 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다”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. 즉,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 자유로운 존재이지만, 그 자유로 인해 모든 만물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(바로)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참된 의미입니다. 그래서,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“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,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”(벧전 2:16)고 권면한 것입니다. 그렇다면,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, (우리의) 죄악을 가리우는데 사용하지 않고,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?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1)첫째, (전적인)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이며,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유(벧전2:11-12)이고, 2)둘째,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외하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(벧전2:17)는 사실이며, (마지막) 3)셋째, 우리는 (기꺼이)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, (자발적으로)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유(벧전2:21)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리하여, 먹을 수 있지만 금식하는 자유,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하는 자유, 누릴 수 있지만 양보하는 자유가 (바로)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자유임을 기억하여, 종과 같이 주님을 섬기며, 세상을 섬기는 데 (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) 자유를 사용하여,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,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
설/교/ 메/모